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7>

##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학승이 물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쪽으로 오나라.”  
학승이 말했다.  
“그쪽으로 가면 즉시 생각이 미치는 곳입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주 스님이 손을 흔들어 세우고 말했다.  
“그대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학승이 말했다.  
“손이라 부릅시다. 화상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백(백)까지 이름은 나 역시 그대로 부르는데.”  
학승이 말했다.  
“화상의 백 가지 이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야.”  
학승이 예배하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  
학승이 말했다.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석가세존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야.”  
학승이 말했다.  
“조사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옛 사람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주 스님은 손가락을 들면서 말했다.  
“무엇이라 부르는가?”  
학승이 침묵하자, 조주 스님은 다시 말했다.  
“어찌하여 즉시 깨닫지 못하는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는가?”

僧良久  
師云 何不當頭頭著 更疑什麼

이 문답을 보면 과거의 선사들은 오늘날 선사와 다르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것에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개개인 이 부처인 것을 깨달은 진정한 선사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굳이 감추고 은밀하게 비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조주 스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자상한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옛날에 이미 다 말해 마쳤다. 그러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부처님과 조사도 말하지 못하고 가버렸다. 왜냐하면 그곳은 각자 스스로 보아야 할 곳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백 가지 명칭을 들어서 말로 설명하면 그곳은 이미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만다.

조주 스님이 일지(一指)를 들었을 때 백 가지 명칭이나 말이나 생각을 내지 말고 다만 그냥 보아라. 그러면 그곳이 바로 백 가지 명칭이나 말이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선문답을 하는 기지가 남다른 데가 있다. 조주 스님이 “나는 귀가 먹었어. 더 큰 소리로 물어봐.”하고 말하는 것은 답변과 동시에 내방객의 경지를 시험해본 말이다. 소위 막고 찌르는 것을 동시에 한 것이다. 나는 귀가 먹었다고 말할 때 선객은 벌써 조주를 가능해야 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물어보라고 했을 때 즉시 알아채고 다른 질문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선에 초심자인 학승이 조주 선사의 의도를 못 알아채고 재차 큰 소리로 똑같은 질문을 던지자, 조주 스님은 “그대가 나의 가풍을 알아볼 때 나는 그대의 가풍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나의 가풍이야” 하고 말을 마친 것이다.

누구든지 선을 알면 귀가 막히고 병어리가 된다. 조주 선사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만일 내방객이 선에 탐통했다면 이 한 마디에 조주의 가풍을 즉시 알아봤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귀가 먹었어. 더 큰 소리로 물어봐”하고 말할 때 똑같은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뭐라고 다른 질문을 던져야 좋을까? 만일 본 닻자라면 “어묵등정을 여의고 한 마디 해보십시오”하고 질문할 것이다.

### 누구든 선을 알면 귀가 막히고 병어리가 된다 분노라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바로 깨달으라. 그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본 것이다.  
손가락이나, 주먹이나, 손수건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달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대답의 뜻을 깨닫기 바란다.

問 思憶不及處如何  
過者邊來  
云 過者邊來即是及處 如何是思不及處  
師豎起手云 你還作什麼  
云 喚作手 和尚喚作什麼  
師云 百種名字我亦道  
云 不及和尚百種名字 且喚什麼  
師云 與麼即思憶不及處  
僧禮拜  
師云 教你思憶得及者  
云 如何是  
師云 釋迦教教師是你師  
云 祖與佛古人道了也 如何是思憶佛及處  
師再舉指云 喚作什麼

조주 스님은 선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평상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여우나 늑대나 들짐승 같은 그것이야.”

問 如何是平常心

師云 虎狼野干是

평상심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여기서 확실하게 여우처럼 사랑제교에 능하고, 늑대처럼 거칠고 이기적이며, 온갖 들짐승 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보통의 마음이 곧 평상심이라고 했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에게 “평상심이 곧 포이다”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조주 스님이 평상심을 이해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답이다.

사람이 비록 지금 마음이 거칠고 망상이 가득하다 해도 모두 진심(真心)에서 나온 것이다. 마음은 그렇게 무한히 자유로운 변화를 짓는다. 따라서 분노라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다. 슬픔이라고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다. 계교모사라고 해도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작용이다. 이 평상심이 바로 불교에서 지향해 가는 도(道)의 경지인 것이다.

다만 스스로 부처인 것을 깨달은 자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다.

■ 무불선선 선원장

###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18 운문광진선사어록

## 불성을 체득 독특한 접화수단 활용

중국의 선종오가 가운데 당대 말기에 형성된 운문종의 개조인 운문문언의 법어집으로 <운문광진선사어록> 3권은 대정신수대장경 제47권에 수록되어 있다. 문인 수견(守堅)이 수집한 것으로 상권에는 대기(對機) 22칙, 십이시가(十二時歌), 계승이 수록되어 있고, 중권에는 실중어요(室中語要) 185칙, 수시대어(垂示對語) 290칙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감번(勘辨) 165칙, 유방유록(遊方遺錄) 31칙, 유표(遺表), 유계(遺擲), 행록(行錄), 정소(請疏) 등이 수록되어 있다. 판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 1) <운문광진선사어록> (합본 중간본. <고존속어록> 권10-권12 및 명장본 <고존속어록> 권15-권18)은 소해(蘇海)가 서문(1076년 기록)을 부가해 선화 2년(1120) 무렵에 복주(福州) 고산(鼓山)의 원각종언(圓覺宗演)이 교감한 것으로 현존 최고본(最古本)이며 완전본이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뇌악(雷岳)이 947년에 지은 운문의 <행록>과 958년에 지은 운문의 <실성비>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도 운문의 어록이 유행되고 있었다.)
- 2) <운문광진선사어>(<속개고존속어요> 지집): 기회 2년(1238)
- 3) <소주운문광진문언선사> 1권(<오가어록> 제3권)은 명대 말기.
- 4) <선자운문광진흥명운문언선사어록> 1권(<어선어록> 제6권)은 옹정황제 시절의 간본으로 <오가어록> 본을 계승한 것



노염달대사(35x45cm)2006. 담원 김창배.

운문의 행장에 대해서는 <운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947년에 뇌악이 찬술한 <행록>과 또 뇌악이 찬술한 <대한소주운문산광대선원고광진대사실성비>(<당문승유> 제48권)과 또 뇌악이 찬술한 <대한소주운문산대각선사대자운문광성평명대사비명>(<전담문> 제893권), 그리고 각범해홍이 찬술한 <선림승보전> 제1권의 기록이 자세하다. 이에 의하면 운문문언(雲門文偈, 跋脚子: 864-949)은 운문종의 개조로서 절강성 가흥현 사람이다.

도술사의 지장유사를 따르다가 17세 때 출가했다. 율을 공부한 후에 목주도종(睦州道蹤)에 참문했고, 다시 설봉의존을 참문해 그 법을 이었다. 오대(五代) 남한(南漢)의 조정에서 종종 내내설법을 해 광대선원(光泰禪院)이라는 직책을 받고, 광진대사(匡真大師)라는 호를 받았으며, 대자운문광성평명선사라는 시호를 받았다.

운문문언은 혼란기였던 당 말기 및 오대에 활동한 선사로서 설봉의존의 법사이다. 17년 동안 남과 북으로 유행하면서 조주의 영향으로는 언어의 극명(克

明)과 간단(簡單)이라는 개념을 체득하고 남양해종의 영향으로는 불성(佛性), 신신(身心), 법신(法身), 무정설법(有情說法) 등의 사상을 체득해 이후에 독특한 접화수단으로 활용했다. 그 접화수단에 대해서는 <운문록>에다 소해(蘇海)가 붙인 서문(1076년)에 잘 나타나 있다.

원나라 시대의 증봉명본(中峰明本)은 <증봉공록> 권11에서 선종오가를 가각 위양(滂仰)의 근엄함, 조동(曹洞)의 세밀함, 임제(臨濟)의 통쾌함, 운문(雲門)의 고고(高古)함, 그리고 법안(法眼)의 간명(簡明)함이라 평가했듯이 보리·열반과 선(禪)·도(道)를 초월한 언변을 구사하였다. 곧 그의 보(佛), 거(法), 로(露), 시(時)와 같은 일자선(一字禪)은 <운문공록>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또한 주장자를 활용한 체(體)·용(用)의 가르침은 증생과 부처, 생과 멸, 색과 공, 명과 암 등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교화법으로 승화했다. 특히 고·감·이(顧·鑑·叻)라는 세 글자는 운문의 접화방식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운문추고(雲門抽顧)라는 말로 전승됐다. 곧 추(抽)는 생각한다는 뜻으로 고(顧)자를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운문은 승을 만나면(顧) 그 승한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점검하며 조심하라(鑑·叻)고 말했다. 그런데 운문의 법어를 기록한 사람이 고·감·이(顧·鑑·叻)는 운문은 사람들을 만나면 돌아보라(顧), 살펴보라(鑑), 조심하라(叻)고 말했다라고 잘못 기록했다. 때문에 운문의 법사인 덕산은 고(顧)를 빼고 감(鑑)이라 했다. 곧 덕산은 운문이 학인을 접화하는 기관(機關)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진의를 드러낸 것이다.

운문삼구(雲門三句)는 1) 환개건곤(函蓋乾坤) 2) 절단중류(截斷衆流) 3) 수파축랑(隨波逐浪)으로 각각의 어구에 계승을 붙여 노래했다. 환개건곤은 그 의미로 보아 일체의 모든 존재 전체가 진여 그 자체로 간주되는 의미이고, 절단중류는 미혹의 근원을 절단하고 곧바로 진여 그 자체가 파버리는 곳에 참선학도의 요결이 있다는 의미이며, 또 수파축랑은 학인의 지도는 각기 상황에 응하여 적절자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운문선사 자신의 글이 아니라 운문선사의 제자인 덕산연밀(德山緣密)이 운문선사의 접화방편을 지어서 계승으로 남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운문의 접화수단을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흔히 운문삼구라 불린다.

■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저승에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쇄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날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으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기도의 비밀”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49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내마음의 절) ■ 전화: 1661-2575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